

2024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자율융합계열)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 시간 10분입니다.

【문제 1】 아래의 제시문을 잘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칸트는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은 예비 조항, 영구 평화를 확정 짓는 확정 조항, 영구 평화를 위한 보충 조항을 제시하였다. 칸트는 국제 관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세계가 절멸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영구 평화론’ 중 예비 조항의 내용이다. 첫째, 장래의 전쟁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밀리에 간직해 두고 맺어진 평화 조약은 이를 평화 조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떠한 독립된 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증여로써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셋째, 상비군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제도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나]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개인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만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곤 별로 없었다.<중략>.....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묶이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늙은이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중략>.....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뺏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헐끗 이쪽을 바라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뺏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쭉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중략>.....

「애,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올가밀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 새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건졌다. 쯤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서 있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하늘에 곧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학(鶴)>, 황순원

(문제 1-1) 제시문 [가]의 여섯째 조항의 측면에서,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의 ‘그렇게’ 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시오.

(문제 1-2)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학사냥” 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출처

제시문 [가] : “칸트의 영구 평화론”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은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저작이다. 칸트의 도덕론에 의하면 전쟁은 악이며 영구평화야말로 인류가 도달해야 할 의무였다. 전쟁이 인격의 품위를 파괴하고 자유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화를 원하며, 또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긴다. 그는 인간이 이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므로 분쟁과 혼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평화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제시문 [나] : 황순원 단편소설 <학(鶴)> 발췌

성삼과 덕재는 한 마을의 단짝 친구였다. 삼팔선 접경의 이북 마을,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덕재가 치안대에 잡혀왔고, 성삼이 덕재를 단독으로 호송하게 되었다. 호송 도중 성삼은 덕재가 옛날 같이 놀려주었던 꼬맹이와 혼인한 일을 알게 되었고, 같이 흑부리 할아버지의 밤을 훔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제로 북으로 이동하는 데서 빠져 농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려는 아버지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덕재에게서 듣는다. 덕재가 전혀 이념의 동조 없이 빈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당한 것일 뿐 예전의 친구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어린 시절 학사냥의 기억을 되살리며 포승줄을 풀어준다는 간략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은 외적으로는 성삼과 덕재가 각각 속한 진영 간의 대립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삼의 마음속에 덕재를 호송해야 하는 역할과 덕재와 우정을 나누었던 과거의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결함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애착을 받는 길조인 ‘학’을 중심으로, 이념의 분단이 빛은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이념의 분열이 우정이나 순수한 인간애를 궁극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작가의 휴머니즘이 밀도 있게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은 1953년 5월 『신천지(新天地)』 52호에 발표되었고, 1956년 중앙문화사(中央文化社)에서 간행한 단편집 『학』에 「소나기」·「매」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미국의 계간지 『프래리 스쿠너(Prairie Schooner)』에도 게재되었다.

문제 1-1 해설

윤리과 교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공통 교육과정인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 문학 작품인 황순원의 ‘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문제 1-2 해설

제시된 글에서 학사냥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소설의 맥락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덕재)에게, 또한 인간적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는 사태(총살감)에 이르지 않도록 도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학사냥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평화와 공존의 방법으로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행위와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 1-1 평가기준)

상: ‘그렇게’ (죽여 봤니?)가 여섯째 항목에서 표현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를 뜻하는 것임을 제시. 즉, 비인도적 살인 행위가 없음을 의미함을 제시.
중: 비인도적 살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살인의 일반적 비도덕성만을 제시
하: ‘그렇게’를 양적인 의미로 파악

(문제 1-2 평가기준)

상: 장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행위로서, ‘학사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도덕적 의무를 수행한 행위임을 제시.
중: 이념의 분열로부터 우정이나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행위로 제시.
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친구를 도망칠 수 있도록 한 단순 행위로 제시

문제 1-1 예시 답안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여섯째 조항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장래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인도적 적대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의 ‘그렇게’(죽여 봤니?)는 여섯째 항목에서 표현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를 뜻하는 것으로, “농민동맹 부위원장”이었지만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끼고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게’ 비인도적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역설한다. 덕재는 ‘그렇게’ ‘회복 불가능하게’ 적대 행위를 했느냐고 반문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도덕적 의무 이행을 입증하면서, 성삼에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 1-2 예시 답안

‘학사냥’은 성삼과 덕재가 장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행위이다. 성삼은 대화(와 과거에 대한 기억)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덕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덕재에게 행해야 하는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학사냥’을 제안한다.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인, 덕재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총살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덕재는 성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므로 ‘학사냥’은 두 사람의 우정과 순수한 인간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사건이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자율융합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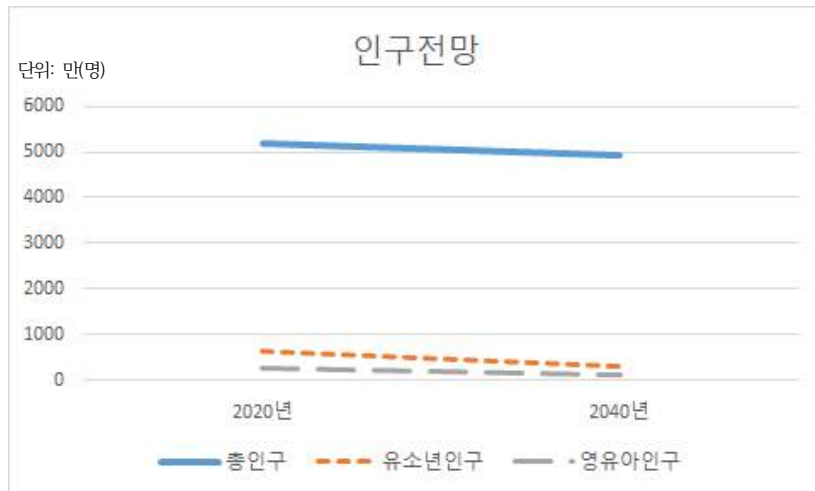
=====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시간 10분입니다.

【문제 2】 다음의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대한민국의 최근 혼인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은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204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해보면 총인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소년인구(0~14세) 및 영유아인구(0~6세)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총인구는 4천916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나]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에서 2040년대 0.9%, 2050년대 0.8%, 2060년대 0.7%로 낮아진다.

$$\text{※ 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실질국내총생산} - \text{전년도실질국내총생산}}{\text{전년도실질국내총생산}} \times 100$$

(문제 2-1) 제시문 [가]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2040년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가]와 [나]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해서 204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답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단,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 실질국내총생산/총인구)

<출처>

제시문[가] : NABO 경제동향,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 교과서 개념: 천재교육, 사회·문화, 181-183페이지(저출산·고령화)

제시문[나] :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 교과서 개념: 지학사, 경제, 102페이지(1인당 국내 총생산), 104페이지(경제성장률)

<문제 2-1 해설>

문제 2-1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2020년에 비하여 2040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문이다. 총인구 감소폭 보다 유소년 인구 감소폭이 더욱 크게 감소하여 추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제 2-1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문제 2-2 해설>

문제 2-2는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에 비하여 2040년에 하락하여 성장률이 둔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문제 2-2는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서 성장률은 하락하나 경제 자체는 성장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감소하므로 1인당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 2-1 평가기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두 정확히 답하면 ‘상’, 둘 중 하나만 정확히 답하면 ‘중’, 모두 답을 못하면 ‘하’

<문제 2-2 평가기준>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 이유를 모두 정확히 답하면 ‘상’, 둘 중 하나만 정확히 답하면 ‘중’, 모두 답을 못하면 ‘하’

<문제 2 종합평가기준>

A+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 이유를 모두 정확히 답한 경우
A0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을 정확히 답하나 이유를 정확히 답하지 못한 경우
A-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정확히 답하나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이 틀렸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답한 경우 또는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 이유는 정확히 답하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만 정확히 답한 경우
B+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정확히 답하나,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이 틀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 이유는 정확히 답하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답하지 못하는 경우

B0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 이유 중 하나만 정확히 답한 경우
B-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대응책,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방향, 이유 중 하나를 어느 정도 답한 경우
C
답을 하지 못하거나 이에 제시문 및 문제의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한 경우

<문제 2-1 예시 답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력이 줄어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부양인구가 줄어들어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커져,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노후소득 감소로 인한 노인빈곤문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이 있다.

<문제 2-2 예시 답안>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 이유는 2040년 총인구는 감소(분모 감소)하고 성장률은 둔화 되지 않지만, 실질국내총생산은 증가(분자 증가)하므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